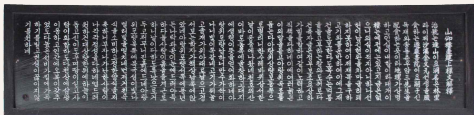


산양루중건상량문해석(山仰樓重建上樑文解釋)

2006_미상(未詳)_35.0×145.0cm



「산양루중건상량문」의 한글 해석문이다. 서자(書者)는 미상이다.

山仰樓重建上樑文解釋

治號는 연산이요 洞名은 林里라 이제 沙溪 金文元 선생을 賔食하는 遼巖書院이요 嗣子 신득재와 송동춘, 우암 三先生을 配食하는 곳이라 地理가 상명하고 인심이 내합이라 대개 이 樓는 예전에는 있고 지금은 없으니 의심이 적지 아니하나 선현이 남긴 현판을 차마 급히 폐하지 못하여 이제 재축을 구하고 기와를 운반하여 이에 그 재건을 도모한다 도목수는 명통을 들고 부하는 칼과 도끼로다 건축자금은 정부보조요 상하가 힘을 합하여 같이 노력하고 직책을 다하네 이에 여러 늙은이의 말을 듣고 아랑 위 곡조를 듣는다 아랑 위 상량보 동쪽으로 벌리니 한 수레 바퀴 상서한 날이 공중에 나왔네 천호의 산이 바로 동쪽에 올창하고 고대지에 생령이 뜻을 얻어 화하네 아랑 위 포랑 남하니 만수가 삭이 나니 빛이 쪽 같네 고기가 뒤늘고 솔개가 위아래로 날고 경서보는 학자가 책상 남쪽에 앉았네 아랑 위 포랑 서쪽에 풍년 든 나락과 콩이 눈에 드려 아득하다 들사람이 흠을 즐겨 근로하니 날이 다하도록 낮으로 거두고 저무니 진흙에 드네 아랑 위 포랑 북쪽에 북극성이 빛나 멀리 빛을 떨치네 먼저 거친 곡식을 소비하고 정한 양식을 저축하니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각각 정성을 다하네 업드려 원하건대 상량한 뒤에 하늘이 돕고 신이 도우며 명이 살고 사람이 화합하도다 천상에 삼광이 응하고 인간에 오복이 갖추었도다 높은 선비가 집에 가득하기를 빌고 현성이 끊이지 않기를 원하네

산양루중건상량문해석(山仰樓重建上樑文解釋)

치호(治號)는 연산이요 동명(洞名)은 임리(林里)라. 이제 사계(沙溪) 김문원(金文元) 선생을 칠식(賔食)하는 돈암서원(遼巖書院)이요, 서자(嗣子) 신득재와 송동춘, 우암 삼선생(三先生)을 배식(配食)하는 곳이라. 지리(地理)가 상명하고 인심이 내합이라. 대개 이 누(樓)는 예전에는 있고 지금은 없으니 의심이 적지

아니하나 선현이 남긴 현판을 차마 급히 폐하지 못하여 이제 재목을 구하고 기와를 운반하여 이에 그 재건을 도모한다. 도목수는 명통을 들고 부하는 칼과 도끼로다. 건축자금은 정부부조요 상하가 힘을 합하여 같이 노력하고 직책을 다하네. 이에 여러 늙은이의 말을 듣고 아랑 위 꼭조를 돕는다. 아랑 위 상량보 동쪽으로 별리니 한 수레바퀴 상서한 날이 공중에 나왔네. 천호의 산이 바로 동쪽에 올창하고 고대지에 생령이 뜻을 얻어 화하네. 아랑 위 포랑 남하니 만수가 싹이 나니 빛이 쪽 같네. 고기가 뛰놀고 솔개가 위아래로 날고 경서보는 학자가 책상 남쪽에 앉았네. 아랑 위 포랑 서쪽에 풍년 든 나락과 콩이 눈에 드러 아득하다. 들사람이 흠을 즐겨 근로하니 날이 다하도록 낮으로 거두고 저무니 진흙에 드네. 아랑 위 포랑 북쪽에 북극성이 빛나 멀리 빛을 떨치네. 먼저 거친 곡식을 소비하고 정한 양식을 저축하니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각각 정성을 다하네. 엿드려 원하건대 상량한 뒤에 하늘이 돕고 신이 도우며 땅이 싹이 싹이 화합하도다. 천상에 삼광이 응하고 인간에 오복이 갖추었도다. 높은 선비가 집에 가득하기를 빌고 현성이 끊이지 않기를 원하네.